東亞日報

發行兼編輯人 ... 印刷人 ...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倫敦會議에對한 吾人의所感

一

世人의耳目을傾케하던 倫敦會議는 最終議定書를 今日에 調印하리라는 傳聞이잇다 大抵 獨逸은 敗戰國이라 戰勝한 餘威를 憑恃하는 聯合側에서 더욱이 英佛兩國에서 이를 그다지 尊重할 外交가 업슬것이다 그러나 事는 此와 反하야 猛虎를 圈中에 監禁하고도 何時던지 咆哮하며 跳出하리라는 自怯의 나머 羈絆이라도 放心치못하는것과 가치 聯合側諸案을 보면 賠償은 口實이라 어대까지든지 彼를 抑壓하야 한번에 再起할 餘慮가 업도록하라는 것이다 彼此의 關係上 注重하는 要點가 그것으로 抑壓하는 方法이 同一치아니하니 이는 英佛의 意見이 자조 齟齬한 所以이다

二

佛國은 國債가 만흔나라이다 一九二三年末에 英米債의元利金을 合算하면 約四千億法이 엿섯는데 一九二〇年에 至하면 國債의總額이 五千億法에 達하리라한다 倫敦賠償協約에 依準하야 佛國에 分排될 二千八百億法을 佛國의 確定國債中으로부터 差引한다하야도 佛國이 依然히 一九二〇年에는 國債가 依然히 二千二百億法의 巨額이다 此와 如히 財政難에 陷한 佛國은 獨逸賠償問題를 急히 解決하지 안흘수 업다 그러나 佛國側의 懷抱는 安全保障으로써 큰 目的을 삼으니 安全保障은 다른것이아니라 將來 獨逸이 復興하야 佛國을 侵犯할것가트면 英米兩國이 軍事的行動을 佛國과 一致하게하라는것이다 一九二三年一月에 賠償不履行이라는 條件으로 佛白軍隊가 루르 占領한것도 포앙카레氏가 英米에 對하야 要求하든것인데 英國側은 左曲右折을 몰을것업시 모다 이 意思를 包容하엿다 目前의 急함이잇슴으로 日後에 미치는 計策을 不得已停頓하고 英米의 主張과 大概合同하야 會議가 終結에 일으럿스나 英國의 經濟的壓迫策과 가치 佛國도 軍事的自國策을 解決치못한 것은 佛國의 遺憾으로 생각할것이다 그러나 英國의 經濟的抑壓이라는 것도 지금 獨逸의 工業發達이 戰前을 凌駕하는 形勢이라 抑壓이 永久한 保障은 되기 어려울것이다

三

도쓰案은 獨逸經濟力에 相當한 賠償을 課하라는 公平한 賠償案이라고한다 그러나 稱償은 賠償을 課하는 便에서 見한 稱이다 勿論 獨逸에 對하야는 過重한 賠償이다 또 中央銀行의 實權을 把握하야 獨逸國內經濟力을 制裁하는것은 곳 獨逸經濟界에 悲慘할 運命이라할것이다 이가트는 外來的抑壓을 當하면서 蒸蒸向上하는 獨逸의 形勢는 오죽 工業에만 그치지아니하야 猛虎의 在檻함과 가치 敵國을 怖畏케하는것을 보면 何國을 間할것업시 自强하는 實力의 威脅이 果然 如何한가 精神이며 또 抑壓的豫防은 도로혀 激發하는 것이라 再起할 形勢를 ... 報復할 志氣가 金石가치 剛固할 것가트면 抑壓하는 勢力이 ... 勇猛을 當치못하는 법이다 그럼으로 우리로하야곰 ... [illegible]

倫敦會議協定과 獨逸官邊의 滿意表示

獨逸官邊에서는 倫敦會議協定은 只今까지는 滿足하다고할터이다 그러나 人民에 對하야는 루르撤退問題가 落着되기까지는 그러나 未解決이라고한다 ... [illegible] (伯林九日發)

佛國首相의 歸國

佛國々務總理 에리오氏는 日曜日外지 巴里에 歸하야 關係者諸氏와 協議를할 豫定이다 ... (倫敦九日發)

또 新難關이 發生되엿다 —倫敦에서 開催되는 聯合國會議에 ...

佛國首相 에리오氏가 ... 撤兵件에 對하야 ... [illegible] (倫敦九日發)

除米會議開催期 英首相對佛首相確言

佛國國務總理 에리오氏는 十日朝의 飛行機로 倫敦을 가라고하는바 ... 各國委員長會議에 ... [illegible] (巴里九日發)

英露條約의 經過와 露國新聞의 憂慮하는 論調

「이스베스티아」紙의 斷言한바에 依하면 ... 英國政府는 歐洲大戰前英國人의 露國公債를 所有한 ... [illegible] (莫斯科八日發)

英露協定成立과 露紙의 期待

「이스베스티아」紙는 其社說에 英露協定成立의 結果 日, 米, 佛三國共히 必然的으로 協定이 成立되리라고 指摘하엿더라 (莫斯科九日發)

伊機의 橫斷飛行

伊太利飛行家 「로카텔리」氏는 大西洋을 橫斷키위하야 ... 九日發 (英國...)

廣東赤化의 第二期 爲先孫氏鄕里부터 實行着手

廣東政府의 勞農化는 中央執行委員會, 農民協會及公民聯合會의 成立에 依하야 一進展을 示하엿는데 孫文氏는 此의 第二期實施로 自己의 鄕里인 香山縣을 選擇하야 ... [illegible] (廣東電)

日本國民에 忠告 廣東國民黨의 宣言

國民黨은 日本國民에게 忠告한다고 揭하고 九日長文의 宣言書를 發表 ... (廣東九日發)

露公使館引渡案은 近々無事解決될듯

露國公使館引渡問題에 關하야 關係八個國中日本, 英國, 米國, 佛國及伊太利 五個國은 旣히 同意한다고 回答하엿스나 其餘의 白耳義, 和蘭, 葡萄牙 三國에서는 九日正午까지 아즉 回答이 업는바 아마 異議는 업슬것이다, 이리하야 本問題도 近々無事解決하야 公使館이 引渡케되리라더라 (北京九日發)

廣東에 露領事館設置 —廣東政府는 勞農政府代表 「보로진」氏를 通하야 「카라한」氏로부터 ... [illegible] (廣東九日發)

카메넵氏來海

勞農赤衛軍總司令官 「카메넵」氏는 ... (海港九日發)

反帝國運動의 波及 全國的으로 大示威計劃

北京에서 起한 反帝國主義聯盟運動은 漸次各地에 波及되야 湖南長沙의 各團體가 此에 贊同하야 猛烈한 運動을 繼續하며 廣東國民黨中央執行委員會는 北京의 聯盟籌備所에 贊成의 電報를 送하야 努力을 要求하고 ... 九月三日부터 一週日間을 反帝國主義데이로 하고 全國的으로 大々的示威運動을 開始하리라더라 (上海八日發)

與黨三派의 憤慨 首相의 官僚化에

加藤首相의 官僚化한다함은 일마다 그것이 露骨되는바 今回政務官銓衡에도 그 配定이 貴族院에 二의 比率을 與하야 小野大藏次官이 犧牲이 되는 ... [illegible] (東京電)

政務次官拒絕 研究會意思一致

政務次官人選에 關하야 政府는 貴族院에서도 選拔하기로 決하야 八日 靑木信光子를 通하야 大河內正敏子에게 就任交涉을 한바 ... [illegible]

十三年度 各省支出案 最後決定은 中旬頃

大藏省은 各省에서 廻附된 十三年度 ... [illegible]

利權交涉拒絕 카라한氏의 宣言

「카라한」氏는 九日 新聞記者에게 向하야 露國政府는 承認과 交換的으로 露領吟噠의 利權讓渡를 日本에 許容할수는 업다고 말하엿더라 (北京九日發)

會議形勢不調 —日露會議가 如意치아니하야 四五日은 中止하고 訓電을 仰請하엿더라 (北京九日發)

카氏態度 매우 强硬 —特殊利權問題로 頗히 困難에 빠져 日露會議는 ... [illegible] (北京九日發)

日本案은 一切反對 —日露會議는 利權問題를 交涉의 焦點으로 하야 ... (北京九日發)

請訓의 必要로 二三日間中止 —九日會議에 露國側에서 ... (北京九日發)

露國側의 會議悲觀 『交涉은 畢竟不如意하리라』

日露交涉은 石油利權의 根本問題로 雙方主張의 相異하야 ... [illegible] (北京九日發)

局課長會議 第二回開催期

政府에서는 前에 加藤首相의 訓示한 趣旨에 基하야 各省의 行政財政整理에 先하야 內閣直屬의 ... 十一日 午前八時半부터 ... (東京電)

體育聯盟組織

文部省에서는 ... 體育聯盟을 組織하고 ... (東京電)

夏秋蠶掃立數 前年보다 激減

秋蠶掃立枚數豫想(第一回)은 九百九萬三千三百五十枚로서 ... (東京電)

五港上旬貿易 神戶만이 入超

八月上旬中五港貿易의 槪況은 左와 如하더라

神戶	輸出一六,〇九八, 輸入二四,六四四, 合計四〇,七四二
大阪	輸出一六,二〇七, 輸入五入超八,五四六 (大阪電)
橫濱	輸出一八,二四二, 輸入一五,八六... 合計二一,八九三, 出超一〇,六二〇
長崎	輸出六四九, 〇〇〇, 輸入二九四, 〇〇〇, 出超三五五, 〇〇〇
名古屋	輸入一,一八一, 出超三九 (名古屋)

地方稅制를 整理統一코자 —整理委員調査着手

有吉前政務總監時代 國稅와 地方稅의 不均衡과 財源의 不統一 等에 鑑하야 그것을 整理하기爲하야 ... [illegible]

朝鮮의 地方稅制는 必要에 應하야 比較的 賦課하기 容易한 ... [illegible]

十二年度豫算

府稅	二,二九一,六四九圓
面賦課金	一,五六五,二七七
學校組合費	三,三八〇,八〇八
學校費	六,九五六,三五九

關稅增徵과 各輸入品의 影響(續) 井上稅務課長談

... [illegible]

郵便集配改善 郵便을 速達코자 遞信當局談

近來朝鮮人의 通信力은 格別히 增進되엿는데 ... [illegible]

◇東亞漫畫 投稿歡迎

集配度數

... [illegible]

煙草賣買漸減

七月中의 煙草賣出이 ... [illegible]

昨年中鑛稅調査

朝鮮의 鑛稅는 鑛產稅와 鑛區稅로 ... [illegible]

各地觀察議員

... [illegible] (東京電)

辯護士試驗施行期

本年度辯護士試驗은 九月六日부터 帝國大學內에서 施行케되엿더라 (東京電)

橫說竪說

◇日本警察局에서는 ... ◇東京市民은 ... [illegible]

咸鏡線開通準備

... [illegible]

主要港船舶出入數

... [illegible]

自由鐘 ◇全州切痛生에게

... [illegible]

禿脫 毛生液 ... 朝鮮文說明書 ... 山崎榮三郎

醴泉分局設置一週年紀念 醴泉私設大昌學院 職員一同

大邱穀物株式會社 醴泉出張所 姜琪熙

醴泉邑內 穀物貿易商 姜九五

醴泉邑內 錦繡商 金顯植

醴泉邑內 張孝根

醴泉邑內 崔榮範

醴泉共益組合

龍宮面事務所 職員一同

龍門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柳川面事務所

柳川面花枝洞 李泰率

上里面鳴鳳寺 禹相國

上里面私立鳴鳳學院 職員一同

上里面鳴鳳寺 主持 權月浩

北面 張秉奎

北面 林奎昌

虎鳴面長 李中寧

ClibPDF - www.fastio.com

獨立軍金鑛襲來

巡査一名銃殺後鑛夫十餘名을잡어가

구일새벽평북귀성군금광에독립단륙명이와서

재작구일오전한시경에평안북도 귀성군관서면조악동(平北龜城郡館西面造岳洞)에잇는 삼성금광(일인경영)사무소에 무장한 독립단여섯명이 침입하야 순사 김모를죽인후 그사무소에 불을 놋코 현금이백원을 가저가는동시에 광부열한사람을 붓잡어갓다더라(뎡주지국특뎐)

慘死同胞 追憶記念

동경잇는동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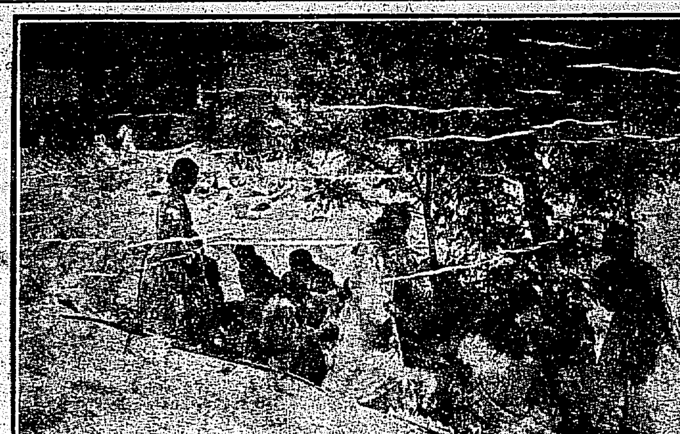
구월일일에거행

오는구월일일은 일본관동에 일본 동경에서 큰디진(地震)이 이러나서 무수한인명이 죽고 또우리 조선사람들은 디진외의 변사로 무수한생명이 참혹히피흘린날이다 동경일본인측에서는 동경시당국(市當局)을 위시하야 각방면에서 피해추억기념(被害追憶記念)회를 행할터이며 재동경조선인들도 잡사곡(雜司谷)에잇는 일선로동회관(日鮮勞働會館)에서 진재에 죽은동포의 추도회(追悼會)를 겸하야 대연설회(大演說會)를 거행할계획인데 경시령(警視廳)에서는 연설회는 고만두어달라고 강경히 교섭중이라더라(동경뎐보)

布哇遠征團 再昨歸京

동포생활은 비교뎍유족하다고

하와이(布哇)에 원정갓든 중앙긔독교청년회 하와이 야구원뎡단(靑年會布哇野球遠征團)이 재작구일 오후일곱시에 경성역에 도착하엿는데 떠날때의 일행중에서 박석윤(朴錫胤)씨외의 삼사인은 미국, 하와이, 요코하마, 동경등디에서 떠러지고 남어지 오륙인만 귀국하엿다 이번원정 려행의일수는 두달여드레가 걸리엇다는데 하와이에가서 야구시합하기는 미국인해군팀과 한번 중국사람팀과 한번 일본사람팀과 세번을싸왓고 토인들과 포도아사람(葡萄牙人)들의 련합한 팀과도싸와서 차혼예임수가 아홉번에이르럿는데 그중에서 여섯번은지고 두번은이기고 한번은 일대일(一對一)로 비겻다하며 그곳에잇는 우리동포들의 최근상황에대하야 일행중 김영근씨의 그곳근일 소식을듯건대 하와이에잇는 동포의 총수효는 오천오백여명으로 그중에 농사짓는사람이 데일 만코 『호놀룰루』에서 장사하는 사람도잇고 학생들도 만흐며 그곳의교육긔관으로 긔독학원(基督學院)이 잇서서 남녀학생백여명이 공부에힘쓰고잇스며 우리 동포의손으로경영하는 교회도잇는데 그곳동포들의 생활상태는 비교뎍 풍족한생활을하며 대개는 외국인의농장(農場)에가서 품팔이하는사람이만코 부인네라도 하로에이삼원식은 벌수가잇다더라



◇그늘아레의 노리!

衡平大會消息

김경삼씨도상경활동

동일한 목뎍을가지고 남북에난호여 서로싸화오든 형평(衡平)사에서는 임의량방의충분한 량해가생기여 머지아니하야 전국뎍으로 형평사원대회를 개최한다함은 임의보도한바어니와 이번에는 과거싸홈의 주인공이든 사람들도 모다 참가하게되리라는데 대구(大邱)형평지사당 김경삼(金慶三)씨도 수일전에 상경한바 금번대회에 참가하리라더라

酷暑

十七年以來 둘재가는더위

념려되는일사병과 농사에밋치는영향

◇三南地方又復騷動◇

요사이 몃칠동안의 견딜수업는 혹독한더위는 낫이나밤을못지안코 갈사록우심하야 재작일가튼 날은 오후네시경에 최고온도가 구십구도삼부나되야 경성측후소(京城測候所)가생긴이후로 둘재가는큰 더위라는데 이와가치 더위가 혹심함으로 위생이보급되지 못한 우리사회에는 각종전렴병이 발생할렴려가잇슴은 물론이어니와 그중에도 가장 우려할만한 것은 만일 주의가조금만 부족하면 일사병(日射病)에걸리기가쉬운것이며 더욱 데일위험한것은 우리나라 재래의 관습으로 해마다 잇는소위『모래찜』이라는 것으로 이와가치 불가튼고열염뎐에 뜨거운모래속에다 몸을 파뭇고잇는것은 어듸로보든지 그다지 조혼일이라고는할수 업슴으로 일반은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잇다는데 이와가치더위에서는 일반농작물(農作物)의 피해도 매우심하야 혹은 황충(蝗虫)가튼것이 발생할념려가잇스며 아즉도

물이부족

한 삼남디방은 나날이 물이 말라드러가기때문에 또다시일반농민들은 불안에 싸여잇다는데 이제 지금으로부터 십칠년전에 생겨난 경성측후소(京城測候所)의 배년더름의 최고온도를 긔록하면 아래와갓고 그중에 오늘까지 데일이엿든것은 대정팔년팔월십오일 온도구십구도 오부이라더라

年度	月日	最高溫度
一九〇八	八、六	九二、三
一九〇九	八、六	九六、一
一九一〇	八、三〇	九二、〇
一九一一	八、二〇	九四、〇
一九一二	八、五	九三、〇
一九一三	八、三一	九〇、〇
一九一四	八、二六	九六、〇
一九一五	八、三	九五、〇
一九一六	八、三〇	九二、〇
一九一七	八、一六	九八、〇
一九一八	八、二五	九七、〇
一九一九	八、一五	九九、五
一九二〇	八、二〇	九六、一
一九二一	八、一	九六、〇
一九二二	八、一六	九七、三
一九二三	八、六	九六、六
一九二四	(今年)	

昨日도酷暑

오후두시에구십칠도 再昨最高九九、三

작일도 더위가혹심하야 오후두시까지의 온도가 구십칠도이엿는데 데일로 그날중에뭄시더운때는 오후네시경임으로 오후두시까지는 구십칠도이엿스나 그것이 엇지될는지 알수업다하며 재작일에도오후세시까지구십팔도부터는 데일덥든것이 동네시경에는최고구십구도삼부까지되엿다더라

城津旱災

한달동안

비가아니와서 대소동

요사이 성진디방은 매일한늘을 우러러 비오기를고대하는데 청진은 근일개월동안 비가오지아니함으로 매일또이는볏에 타는 모양은 참아보지 못하겟다하는바 지금이라도 비만충분히온다하면 풍작이되리라는데 일반은 하늘을 향하야 긔우제를지내는 등 도처에서 야단들이라더라

日射病死者

너무더워서

시내에한사람이죽어

날이더워감을따러 시내에도 일사병(日射病)으로 죽는사람이 생기엇는데 지난팔일 오정때에 시내태평통(太平通)신교(新橋)다리건너 공동변소엽헤 잇는소나무밧에서 낫잠을자다가 사람하나이 커뎌벼가되도록 이러나지아니함으로 사람들이 이상히 녁여 자세히본즉 벌서죽어잣버럿슴으로 소관파출소에 보고하여 경관이림검하엿는데 죽은사람은 태평통일뎡목 오십오번디 리봉화(李鳳華)의집 하인 리모(李某)(?)요 원인은 일사병으로판명되엿다더라

米國도酷暑

더워죽는사람이만타

미국『뉴욕』에서도 륙년이래의 처음되는 혹서로 사망자가속출하는 모양이라는데 지난륙일에 는다섯명이죽고 팔일에는아홉명이 죽엇다더라

漢江에서 又溺死

더위에못견듸어 십오세의학생이

동대문밧 숭사동(崇四洞) 십륙번디 곽청태(郭淸泰)의장남 곽해화(郭海和)(一五)는 숭명학교(崇明學校)삼학년생도로서 재작일오후한시경에 자긔의 친고 한사람과 함께 한강에가서 놀든 중 경원선텰도면선 수원리(水鐵里)한강연안에서 여러사람들이 고기잡이를하고잇는것을구경하다가 나려서 더위를 이기지 못하야 헤염도할줄몰으면서 옷

迷信과貧困

자연과학으로만능진하라

◇우리사회가 파멸의위디에 싸지게 된 큰원인이 자연과학의지식이 부족하고 거긔에 과조한로력이 거의 업는데 잇다한는 투두하말하엿거니와 대개인간생활의근본조건이 경제에잇고 경제의내용은 농상공업에잇스며 농상공업의 향상여부는 자연과학의 발달정도로 결뎡되는것이다 현대세계각국을보라 백이부요하고 국가가강한것은 그 자연과학의발달과 그리용 여하에잇는 것을 알수잇지 아니한가

◇우리조선에뎐산(天産)이빈약한것은 아니다 각처에각종광물이 싸혀스되 그채굴은 거의외국사람의손에 맛기지 안엇는가 뎐답의면적과 디질과그의모든조건이 구비하것만은 그러나 농작하는방법과설비가 유치한녯상태를 벗지 못하야 수한재의위협과손해를 얼마나 입으며 산출의비례가 얼마나적은가이 밧게도 무한한보배를 감히감추고여러주기를 기다리는자연이 얼마나잇는가

◇다시자연과학의 힘대사명은 미신(迷信)을타파하는데잇나니 우리사회가 아즉도 원시뎍으로 미신을신봉하는풍습과회미한환영이상(形以上)뎍관념에 싸커잇스며 최근에도종교와 기와의탈을 쓰고 미신을미혹하는독감이가 횡행하니 이엇지한탄할바이 아니랴

◇우리사회의 파멸은눈앞헤보고 이를건지라는 청의의 피를끌이며 포부를 품고학계에 나어가는동무여 자연의보배고스집을개척하는리로운쇠팔을엇기 위하야 인심을다독하는 미신을 처부수기위하야 자연과학연구에 맹진하라

巡査의强制脫衣로 孕婦가溺水自殺

식누이의죄로경찰서에잡혀가서 순사가옷벗겻다고 물에싸저죽어

츙청북도 청주군면도면 매봉리로그남편인 오영성이가 회(回)(二)라는 녀자는

배속에는

태아(胎兒)와 함께 원한을품고 지난달이십오일경에 물에싸저 자살하엿다는데 그원인은식집아니간 자긔의식누의(媤妹)오○○(吳○○)(一八)이라는녀자가 지난달 어느날뒤무든것을 농군부용면경관수재소에서왈고 그식부모네와 자긔남편인 오영성과 그식누의와 자긔와지 다섯사람을 잡아다가 사실을조사하는중에 사실을명백히 대이지아니함으로녀자는의복(衣服)을

그엽헤서

그광경을보고 잇는 가련한 태아(胎兒)인즉 잘못하면 락태가 될념려가잇스니 그 녀자가태주(胎主)인가 아닌가알자면 더욱히 그녀자는 더욱더욱몸부림을하며 속옷까지 벗기고자함으로 그녀자는 그속옷은 도막도막이 어국는 그속옷은 순사에게죽도록 가는 폭행을하는 순사에게 저항을함으로 뎔 수가업슴으로 부득이 종지하고 돌려보냇는데 그녀자의딸이 내지기까지 하엿스나 종래다못참 가녀자의몸이 되야서 이와가튼 봉욕을하고 이세상을살면 무엇하느냐고 오는종로에서 아모것도모르는복중의 태아와가치 참혹한 죽엄을하야 다더라

練光亭下落胎

누구의소위인고

지난구일오후다섯시반경에 평양 련광뎡(練光亭)아래 사석(沙石)부근에서 임신한 약오개월 가량되는 락태(落胎)를 발견하엿는데 엇던자의소위인지 평양서에서 엄밀조사중이라더라(평양)

問題의 五百萬圓

中國少壯外交家 顧維鈞氏家庭所聞(一)

◇옷가튼일흠에약혼자를예버린황커녀◇

◇고우준씨가명예에생긴자미잇는이약이◇

중국소장 외교가로 명성이 련한 옷과가치 찬양받는 청년외교가인 고씨가 호를 아비로 잇는것을 들은 일로는 불러(?)(老練)를 상당한 수 영어마는말고 춤잘추나 출출의로엄은 일흠을들은 황커녀는 당소의(唐紹儀)씨의 약혼하엿든 남자가 잇섯든터이며 라 할수업시 혼약을해케하는 배로 삼십만원을 그친약혼하는 남자에게주고 파혼을하고 고씨와혼약을맷고 그해에 고씨가 주영공사(駐英公使)가된뒤 『론돈』에서 결혼식을 거행하야 중영원으로 [illegible]

살생각으로 七十老婆自殺

술취한옷헤망녕

강원도 회성군 청일면 초현리 백오십사번디(江原道橫城郡晴日面 二五四) 嚴昔燹母洪씨(?)는 지난륙십사에 되도록 자식을 보지 못하엿다는데 원인은 본래 집안방에서 양잿물을 마시고자살하엿다는데

죽은녀자

와 그복중의 태아의 오며 그친모(親母)는 동군경찰서에서 취조중이라더라(청주)

普天敎 聲討演說

구월십오일에

데일회로열리뎐 다수참가를희망

시내일부문데를 해결하고자 수일전에 수표뎡(水標町) 조선교육협회내에서 팔십여명의 다수인사가모히여 여러가지로 그동안 일본인과 교회(普天敎)와 밋금번 분규관계로 보뎐교청토회(普天敎聲討會)가조직되엿다함은 당시에보도하엿거니와 그 위원들은 작일정오에 시내 도렴동(都染洞)일백사십사번디내 에서 데일회의보뎐교청토위원회를 개최하고 여러가지로진행방침을 의론하엿다는데 그중에 중요한것은 아래와가튼것이며 보뎐교청토에 찬동하는자는 개인이나 단톄를불론하고 재료(材料)의 뎨공(提供)이나 또는 이운동에 참가하여 주기를바란다는 청식통지서를 각단톄에 발송하엿다하며 위원중의결원두명은 신철(辛鐵) 송봉우(宋奉瑀)량씨로 보선하엿다더라

一、事務所는京城府都染洞一四

二、普天敎와및關係者罪狀을調査하야聲討文을發하고來九月十五日에第一回聲討演說會를金剛山의으로開催할일

炭坑瓦斯爆發로 百餘鑛夫慘死?

일본북도단광와사폭발로 백오십명광부가생사불명

일본북도천성군 랑천당(稻津)까지에 기원두명 향부청명의시 더를발견하엿는데 남커지사람도 전부 그뎌게참혹히된듯하며 그 만한에서는 금번이엿에 한번에 죽엇 사람이 퍽만하나 항부엽서명이 죽엇 조사지 [illegible]

일본북도천성군 석성군(石城郡)입산탄광(入山炭坑)에오항에서 재작구일오후 여섯시경마강광부의교대하는새에 항내에서와사(瓦斯)가폭발하야 종업원일백오십명은 생사가 불명하게되엿는데 이동평(伊藤平)경찰서당은 다수한부하를 다리고 현장에급행하야 평업측공부 오십명과함하야 항내수색을 행한결과 (북도면보)

寧邊交戰의後報

독립단두명과순사일명즉사

평북녕변(平北寧邊)군임데에는 무장독립단의발호가 련법 단치지아니하야 일반인심이 공포를 늣기는중 지난 삼일에 도동면오리면봉부동(梧里面鳳鳴洞)김치순(金致淳)의집과 소립면남동동(少林面南坪洞)조광안(趙光安)의집에 독립단이나타나서 군자금을 모집하려하엿스나 마침주인이 피신으로인하야 목뎍을이루지못하엿스며 지난 칠일에 고청면귀항동(古城面歸項洞)장관데(張寬泰)의 집에 또한무장독립단이 나타나서 임의 약속하여두엇든 군자금을 바다가려하엿스나 주인이 또한 한 하엿슴으로 그역시 목뎍을이루지못하고 도라갓다하며 지난 팔일아츰여덜시경에 동군 태평면조산동(泰平面造山洞)엇던민가에서 독립단다섯명이 밥을먹고 잇는것을 경관대의 탐지한바되야 한편과 독립단편의 두명과 경관측의 판본(坂本)순사한명이 즉사하엿는데 경찰측에서는 독립단의 가졋든권총두자루와 복장과 불온문서와 국체증권등을 압수하엿다더라(녕변)

朝鮮女子講習 後援會

경영난으로 유지제씨가모혀서

시내재동(齋洞)팔십사번디에잇는 조선녀자강습원(朝鮮女子講習院)은 작년구월에 가뎡의부인들에게 지식을주겟다는 취지아래 창립되며 그동안 여러가지곤경을겪고 계속하여 오는중경비의부족으로 집세도내지못하고 불완전한 교실은 참아견될수업는데 경비는 더욱곤난하야 경영할수업는 참경에 들어잇슴으로 아래 유지제씨가 지난팔일 오후 여섯시에 대서관(大西館)에 모히어 후원회를 조직하고 경영적을 강구중이라더라

岩泰小作同情金

멀리대판에서

일본대판(大阪)에건너가 잇는 동포들은 암태 소작사건(岩泰小作事件)의 경과를듯고 다음과 가치 동정금을 모집하엿다더라(목포)

[illegible]

普天敎事實은 姓名表記要望

서울청년회에서

시내와룡동(臥龍洞)에잇는 서울청년회에서는 근일에 디방단톄와 개인으로부터 보뎐교(普天敎)의 죄상을 조사하여 보내는 편지에 ...

高元勳、許憲、姜相熙、俞星濬、任璟宰、崔奎東、鄭大鉉、玄相允、權東鎭、李鍾昊、俞浩珠、柳

不平

例不投 에不稿 限은해 엄혹 [illegible]

미들수업소

일전에 련주교당위의십자가(十字架)가벼락을마저 부러젓다하니어되이대쉬야 련주교를 미들수잇소?(군산S U C 생)

그런것아니오

벼락이라는것은 공긔중에 잇는 음뎐(陰電)과양뎐(陽電)의충돌로인하야 이러나는자연현상(自然現象)으로붑혼곳에 잇는물건에잘커촉되는 것이니까 하누님 밋는련주교와 벼락과는 아모상관이업습니다 그러한미신은 속히버리시오(일자연과학연구간)

◇휴지롱 ▲백도를 올으는혹독한 더위에 답씻기도귀찬치마는 하도수작이 얄미우닛가 한놉붓삽어보자 ▲인사동 조선극장은이름만이라도얼마컨지 국장은이름만이라도 ... 일조에일본친구의손으로 들어가자적은리(利)에눈알이밝는친구 들이라 ▲위선각신문에 광고를 업새고 한번에일주일식이나 계속하다가 손님이업스닛가 그 아 뒤통수를륙륙 ▲일본친구이야기가 낫스니 말이지 평안북도위읍군에는 조선인이 이백호가량 일본이 오륙십호나되는데 ▲오후다섯시만되면 이골목 저골목에서 두발가진 범거숭이가 우리를지여 도라다닌다고 ▲의 복경케는 착실히될모양

米豆週觀

▲節序는立秋를지낫다하면秋節이라마는今年에溫度는九... 것을絶頂으로以後溫度는漸次低 ... 移될것이順序이겟지▲各地期米는 ... 市場步調도昨今氣溫의刺戟을밧 ... [illegible]

仁川日用物價

(八月九日仁川支局調)

[illegible]

기침약
祛痰止咳散
산 해 지 담 거
京城太平通二丁目 慈善堂藥房 金鍚瀜 振替京城一九〇七番

保證 半年 신무고표 [illegible]
本人의圓形印鑑을紛失하엿삽기 ... 金 [illegible]

唐麵
一等百斤 二十五圓
二等百斤 二十四圓
天 廣興工廠唐麵製造所
廣盛運輸組 振替京城二三六二番

모기장 蚊帳 金珪熺
京城南大門通四丁目十四 振替京城一九五五
網紗蚊帳을直輸入製造하와左의特價로提供하오니
(〇)(一尺)一件二圓八十錢
(一)(二尺)一件三圓三十錢
(二)(三尺)一件三圓九十錢
(三)(四尺)一件四圓五十錢
(四)(五尺)一件五圓十錢
(五)(六尺)一件五圓七十錢
號數와色을明記하야注文하시옵

開業廣告
三榮商會
主 鄭俊燮
主任 李觀培
同 金國鍊

나나
發賣所 京城蓬萊町一丁目 振替口座二〇三三番 博文書館
京城堅志洞六十番地 朝鮮圖書會社

佛文豪 졸라 原作
洪蘭坡 譯述
四六版美裝三百頁 定價一冊金壹圓 (要先金)

朝鮮賣藥株式會社
四時常備之健胃消滯藥
경신환

LA DONG-A ILBO.

SEOULO, KOREUJO, LUNDO, AUGUSTO, 11, 1924.

KATO KAJ HUNDO.

KOREA FABELO.

Ne nur la esprimo de la agonia suferado de la karpo kortuŝan malĝojon alportis al li, bonanima kaj simpatiema, sed ĝiaj okuloj plenaj je larmoj ŝajnis al li peti helpon, kvazaŭ dirante: "kara homa sinjoro! El la multaj ĉi-tie kolektiĝintaj vi nur povos doni al mi la vivon. Bonvolu fari la bonon tuj, ĉar se ne, mi ne povus ricevi de vi ĝin."

Elpreninte el la poŝo tutan sumon, kiun li enmaniĝis de la laboro, kaj ĝin al knaboj doninte, li povis liberigi la fiŝon post momenta priparolado. Tuj post li prenis la malfeliĉulon per la kolo, ĝin sur la akvon de la rivero forĵetis, por ke ĝi povu ĝui la vivon libere kaj ĝoje sub la propra lando, la akva lando.

"Ĉu li, la maljunulo, ne estas stranga? Kial li liberigis la kvamulon en la akvo por sia propra mano? Neniel oni ĝin komprenis!" Unuvoĉe kriis la homoj, kiuj ĉeestis kaj vidis, kion li faris.

"Nenial. Mi ne povis feliĉigi min pro tro malĝojo de la fiŝo" respondis al ili la malriĉulo.

Kiam la kvamulo ricevis la liberon, unufojon profunde enakviĝis, refojon surakviĝis por momento, kaj ĝi lin rekte rigardis kvazaŭ ĝi esprimis sian kore dankan saluton, sed baldaŭ enakviĝis kaj formalaperiĝis. Kiel ĝoja estis la malfeliĉulo!

II.

Fariĝis la dua vespero. Kiel la hieraŭa tago la maljunulo revenis de la sama laborejo. Kiam li alvenis al la borda sablejo de la rivero, du homoj ĝentile lin salutis; unu estis juna, bela knabo vestita per multe kostaĵo kaj alia matura, forta junulo portinta sur la kapo grandan ĉapelon el kano.

"Ĉu vi, bona homa sinjoro, revenas nun? De longe mi vin atendis. Eble vi estos laciĝa." diris la bela knabo.

"Saĝas al mi, ke vi min prenis por la alia, ĉar mi vin ne posedis en mia propra memoro." respondis konfuzite la maljunulo

(Daŭrigo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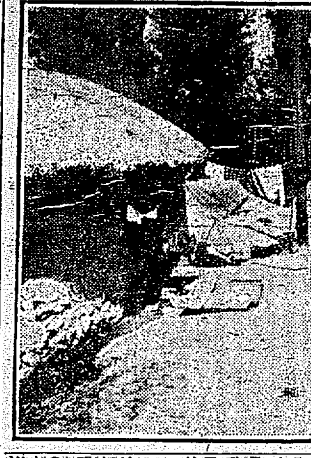
에쓰페란토欄

(2) 개와고양이이야기

二百洞町 二百名物 寫眞記事 내동리名物

蛤洞春香

【正解者】 蛤洞 李道令 (要報酬地)



◇숙종대왕소위조에 김라좌도남원 퇴기월매의딸 가튼딸이 서울삼청동 리승지댁 욱가튼도련님과 삼생연분을 굿게매진뒤에 송죽가튼 그절개가 풍상을 겨글수록 더욱이굿고 변치아니하야 빗다운일홈을 후세에전하게되얏답니다 춘향전뒤풀이는아니하는것이 똑똑한일이지요 고만두겟습니다

◇춘향의사실이라고 전하는말들을드면 춘향이란계집애가 관하박색이라 시집을가보지못하고 죽엇는데 원한이구련에사못처서 남원에 비가오지아니하야 큰한재가 들엇더랍니다 그래서 춘향전을지어서 한풀이를해주엇더니 비가왓다고합니다

◇지금합동에 춘향이하나가잇는데 조막손이거지랍니다 바희달린궤작속에들어안저서 사버를시켜밀리고 이집저집다니며 한푼두푼엇는답니다 이춘향이를위해서 글잘하는분이 새춘향전한권을지어두면 몃백년뒤에 쓰가든 춘향이가 되하나 생길것갓습니다 이것은말쟁이말을 그대로지듯고한말이니 리도령의성춘향이가 참말박색이든것으로는 밋지들마십시요

光熙町 「파리」

【正解者】 光熙町二丁目二〇二番地 尹甚炳

◇광희뎡사람들이 내동리명물은파리라 어느집을 가보든지 사람의진이란는이보담 파리의진이라고하는것이 상당할만큼 파리가욱실하게만타고합니다 파리는추한곳에 만히쐬이는물건이나 파리를명물로내세우는것은 동리가추하다고 자백하는것이나 다름이업습니다 못된바람부는곳에 무슨조흔명물이 차지가겟습니까

◇파리가긴진가음에 알을배고그대로 과동을한답니다 봄새날이따듯하야지면 일백사오십개재기파리를낫는데 그새기가열마동안만지내면 또알을배게된답니다 그래서봄에처음으로 세상에나온암파리한마리가 가을까지가면 칠십구억사천백이십칠만가량되는 파리의조상이 된답니다 이마리가만일참히지도안코 죽지도안코 몃해동안만지내면 이세상은파리의물건이되고말것입니다

◇세계에파리만키로 데일갈만한곳은 아마압록강건너안동현인가합니다 안동현거리를지내가자면 거리의몬지가 떼를지어날나갑니다 이몬지는침팔몬지가아니요 파리가몬지를뒤여쓰것입니다 광희뎡파리 숭은 아마명함도 못들일줄압니다

中央版

中央配給市場

實規方法과經費關係

京城府內市場의漸次整理의必要에 쌀아서 京城府當局者의말을들으면 現在의南大門場은大正十六年度가期限滿了인즉 當時契約대로該市場의建物은全部府에서讓受로買하게되엿는데 如何間九萬圓을支出할바인즉 當然히起債할外에는他途가無한데 此機會에相當한巨額을起債하야 一齊히府內市場의整理를斷行하여 一邊으로日本大都市의例와가치 中央配給市場의必要가잇는데 이外京城에서中央配給市場을設하자면

最小限度

로約二千坪建物을要할것이요 一坪當百五十圓으로建築費만三十萬圓을要하고 基地費로는二十萬圓을豫定하면 合計五十萬圓일터인데 完成後의收入이果然얼마나될지疑問임으로 先히總督府로부터補助金의交附를바다 매우低廉한基地를不得하면 成算이못되니 以上의二點이相當히進行할지라도 起債에對하야는元利償還其他年々四萬圓假量의支出을 府에서負擔치아니치못하게된다云々

今日淸潔

◇本町署管內◇(十一日) 舟橋町, 芳山町, 黃金町四丁目一部, 同五丁目, 初音町, 花園町一部, 黃金町六, 七丁目, 光熙町二丁目

◇鍾路署管內◇(十一日) 苑洞, 臥龍洞, 勸農洞, 桂洞, 嘉會洞, 齋洞, 雲泥洞, 三淸洞, 慶雲洞, 八判洞, 花洞, 昭格洞, 安國洞, 諫洞, 松峴洞

內外싸홈으로 안해自殺未遂

원인은살림사리로

경긔도룡인군읍삼면죽뎐리(京畿道龍仁郡邑三面竹田里)에두고 시내태평통(太平通)일뎡목칠십번디에사는 조성녀(趙姓女)(三一)는 지나간칠일 오전십시경에 자긔남편 안영우(安永雨)와 살림사리로 말다툼을한후 오후네시반경에 남편이밧게나간사이에 자살할목뎍으로 양재물을먹고 신음하는것을 밧게나갓든 남편이도라와 발견하고 곳치료케하여서 목숨에는아모상관이 업엇다는데 원인은자긔남편이 생활곤난으로 늘 서로빈곤한것을 분하게녁인것이 원인이라더라

觀衆近五千

부인납량활동사진 금일에는죽쳠뎡에

부인납량활동사진회(婦人納凉活動寫眞會)가 재작구일 오후 여덜시에 시내청운동(淸雲洞) 공립보통학교운동장에서 열리고 관중이사오천명에 이르러 성황을이루엇다는데 금십일일 오후여덜시에는 시내 죽쳠뎡(竹添町) 공립 보통학교에서 부인납량류 성긔회가 열리리라더라

林野調査委員會

林野調査委員會는來十三日午前九時부터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開會할터이라더라

●鐵工組合員에無料診察 시내남대문통(南大門通)일뎡목삼십번디공애당의원(共愛堂醫院)에

◇版外消息◇

禁酒斷煙宣傳

木浦禁酒斷煙會에서 지난七日은木浦禁酒斷煙會創立二週年에相當함으로 同會에서는此日을紀念키爲하야 아래와가튼宣傳文數千枚를市內에撒布하엿다고

第一, 衛生을爲하야
第二, 經濟를爲하야
第三, 信用을爲하야
第四, 家庭을爲하야
第五, 子孫을爲하야
第六, 社會를爲하야(木浦)

極樂市場設置

將來가매우有望

光州郡飛鶴面靑年實業奬勵會主催로 同面極樂驛前에去十日부터市場을設置한다는데 當地所有產穀物과및其他所產이豊富할뿐더러 交通이便利하고 亦是光州及松汀市場距離가超遠함으로 該市場은實로有望하다하며 市日은每月五日十日이라하며 此를繁昌식히기爲하야 二個月間每市마다各種遊戲, 脚戲, 活動寫眞, 協律, 舞蹈等이잇다는데 脚戲賞品은如左하다고(松汀里)

一等農牛一頭 二等牛一頭 三等白木綿布二疋 三四五等은依毅施賞

會社當局 態度强硬 市民又奮起

◇城津電燈料問題

城津電燈料輕減運動에關하야 市民大會를開하고 交涉委員을選定하여 交涉케하엿다함은旣報와如하거니와 去五日交涉委員은城津電氣會社를訪問하고 五味專務取締와協議하엿는데 會社側에서는지난番에委員이提出한六個要求를가지고 多少誠意는한模樣이나 一方으로如斯히交涉運動이잇다함을一般이알게되자 財界에影響으로不過一個月間에四百餘의

繼續檢擧 事件은擴大?

順天農民幹部

金南順天農民大會聯合會執行委員長金基洙氏와 同郡黃田面農民大會執行委員長鄭在模氏는 去八日에順天警察署에檢束이되엿다는데 其內容은金基洙氏는順天拆草同盟事件에關係로잇스며 共同耕作으로因하야業務妨害에도關聯이잇다하며 鄭在模氏는共同耕作으로單純한業務妨害라는데 順天一帶의勞農運動者는거의全部檢束이되얏슴으로 各面을通하야多數한農民들의人心은매우洶洶하다고(順天)

水害救金分配

◇鐵山에八十八圓

平壤水害救濟會에서는朝鮮內地兄弟와또는멀리(美國羅府)等地에잇는同胞에게서募集된金額中八十八圓을 救濟會事務委員康陵彬金光洙兩氏가가지고來鐵하야 當地基督敎靑年會에分配의任을委托하엿슴으로 去八日午前十一時頃에該靑年會에서는罹災民中目下生活이困難한者四十二人

洞區增置認可

義州威化面에

義州郡威化面은原來二洞이든바 今般에面長金秀鴻氏의區域增置申請에依하야 平安北道知事로부터認可한바 面中上端洞은一區二區로 下端洞도一區二區로되엿든데 至急히第二區長選擧에着手한바 下端洞二區長은內外人雜居地임으로 相當히智識잇는者로選擧할豫定이라고(義州)

怪惡한水產技手

畢竟留置場에

鐵山郡廳에勤務하든水產技手北上은 飮食店과料理店에가서無理한行動을함이非一非再이며 良民의집에夜間侵入과路上通行의婦女子에對하야等猥褻한行動이잇서 地方人民의詰責과警官의說諭도여러번當하엿는데 지난달三十一日午前三時頃에도同郡內飮食店營業하는金花實(女)의자는房에突入하야 房內의燈火를써버리고禽獸의行動을行하려다가 主人에게發見되야毆打까지當하엿고 지난四日에도또다시그집에가서無理한行動을하려다가 行巡하든警官에게毆打를當하고는 동이들을고나와警官의게對抗하려다가 畢竟은留置場에까지드러갓는데 一般은매우憤慨하야當局의處置를注目한다고(鐵山)

棉作增收品評

抽籤으로授賞

梁山郡棉作組合에서는增收品評會에出品地를去月에十五日에當郡에서終了한바 合格者二百十一名의게合格證을交附할터이오 또左記대로抽籤授賞한다고

一等 三十圓 二等 五圓 三等 一圓(梁山)

慶尙小學蹴球

優勝은陝川公普

慶南陝川公立普通學校同窓會主催로 去五日午前八時에當地靑年會運動場에서慶尙小學生蹴球大會를開催하엿는데 加入團體는五團인바 蹴球한結果 陝川公普軍이優勝하엿다고

練習猛烈

加入團比前倍加

◇臨迫한西鮮庭球

本社沙里院支局外各新聞支局後援으로 京義線沙里院庭球團主催의西鮮庭球大會는 來十四日에開催할터이며 各團體는練習에猛烈하다고(沙里院)

畢竟解散決定

慶哀相助社

京義線沙里院慶哀相助社에서는 去八日에總會를開하고 畢竟解散하기로決定하엿다고(沙里院)

彥陽少年少女 懸賞雄辯大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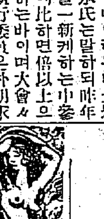
一等은申末實君

慶南彥陽에서는去七日午後九時彥陽少年會와彥陽靑年會의主催와 朝鮮日報彥陽支局 本報彥陽分局의後援下에 懸賞雄辯大會를開催한바 聽衆은定刻前부터四方으로雲集하야立錐의餘地가無한大盛況으로마치엇다는데 受賞者의演題와氏名은如左하다고

◇一等 참다운家庭敎育의맛을보여주시요 申末實君
◇二等 少年부터 河昌允君
◇三等 光明의길 辛根秀君
무엇보담배워야하겟다 金慶淳君
女子의解放 金斗伊孃
女子도사람이다 鄭福順孃(彥陽)

堂上燕雀 (84)

岸曙譯述



아이온은잠들든동안 듯지아니하엿다 가슴에는 한업는적막을늣겻슴니다 부는 바람은 봄길을쏘아서 봄이왕원하게 벗다가나종에 재만남앗다 읽동은 세를모든뒤에 그것을버혀 그 려고 염라대왕에게 감싸주술하야 ……

「아바세스씨」하며 아바세스는 ……

(This serialized novel column is printed in very small type; only fragments are legible.)

質疑應答

【問】甲과乙이賭博을하엿는데 乙이甲에게現金을現物로失하고 ……

【答】賭博에對한債務는履行할義務가無합니다(辯護士金泰榮氏談)

【問】甲은從來藥商을하던中 乙의依託에依하야荷物을取扱하엿는데 ……

【答】……(辯護士金泰榮氏談)

【問】甲은乙의相續人에게對하야 ……

【答】……(辯護士金泰榮氏談)

◇天氣豫報 曇後晴

溫度 昨日正午 九四、〇
再昨日最高 九九、〇
昨年昨日正午 九五、〇

淋疾 靈效丸

定價 二日分 五拾錢

本劑는男女淋疾에靈藥으로 膀胱炎, 淋疾, 尿道炎, 沙淋, 血淋, 急性淋, 慢性淋等에特히神效가잇스며 服用後三, 四日內로完全根治됨

京城鍾路二丁目(鍾路里門越便)
天恩堂大藥房 本舖
電話光化門二五四番 振替京城九番

梅毒

定價 特製二十日分一劑金三圓 十日分一劑金一圓五十錢

本劑는男女梅毒全治에靈藥으로 ……

園成社

新拳鬪王 亞弗利加探險 大陸의女 目的貫行

◇當八月十一日부터 ……

▼百發百中!! 連數카드 獨占

◇누구던지할수잇는新奇術 ……

二組入 特價壹圓

好文社

痔疾 ヒット 權威劑

東京肛門病院長谷泉先生創製
東京肛門病院藥劑部製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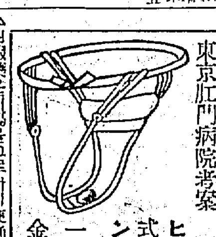
東京肛門病院長談

專門家로서 入院又는來診할수업는患者諸氏를爲하야

◎痔核＝激痛한 혹이 凸起함
◎裂痔＝肛門口 가찌어저 大便苦痛
◎出血＝肛門에서出血하야貧血됨
◎脫肛＝肛門이뒤집혀外部에脫出됨
◎痔瘻＝腐穴 이 생 김
◎濕疹＝……

痔疾初期 變化第二期 餘病三期

東京肛門病院考案



◎挿入藥 ヒット
◎塗布藥 ヒット
◎內服藥 ヒット

◇注意!!

發賣元
東京銀座新肴町八番地 丁子屋藥房
大阪市南區立賣堀北通二丁目九 丁子屋支店

▲全國各地海外到處有名藥店에잇소

ClibPDF - www.fastio.com

月曜欄

當選된 山海로맨스發表 (其二)

이番 바다와山의 「로맨스」를 募集한結果 應募된原稿의 數가만키는하엿슴니다 만은 며케는「로맨스」라는뜻을잘 못알어시고 山과바다의風景에對한原稿를 보내엿슴니다 다시말하자면 山과바다의傳說과 情話엿슴니다 한데應募된原稿에서 第一 나흔것을잘고보니 明에期待하든바와는매 四篇밧게아니되엿슴니다 하야 一等은하나도업고 二三等뿐임니다 더욱 만히달라저서 一等이라도 그대로 採用될만한것은적어 亦是加筆된것이적지안슴니다 心誠이나表하는意謝로 二等은三個月分, 三等은二個月分의本紙를送呈합니다 그리고 作品은하나둘식月曜欄에 發表합니다

佛國寺影池哀話 (二等)

全州大和町五六 梁瑋

이것은神秘의나라이고美術의나라인新羅國의都邑으로千餘年을지내인「慶州」에서 三里를떠드러가山水가秀麗하고 望眼이絶佳하며世界第一의彫刻인石窟庵을背하고잇는新羅遺存의大刹「佛國寺」와그곳부터五里에隔한影池에 둘어잇는哀情하고도勇敢한맛잇는傳說임니다

◇ ◇

이것은距今一千三百八十年前일이라합니다 그때는한참新羅가殷盛한때임으로 그서울慶州는雄大,壯美,華彩,精巧를다하야 어느것이神奇롭지아니한것이업섯다합니다 그럼으로新羅는當時모든나라의欽仰을밧엇스며,사람들은新羅서울을讚美하기를地上의天國이라하얏슴니다 그래서其當時어느나라사람이되엿던지,모든것을이곳에와서배와갓다합니다 더욱히建築과彫刻을위시하야其他美術을배우려는사람은모다이곳에留學하얏다합니다

이때에高句麗나라에建築과美術을專門으로研究하는한家庭이잇섯다합니다 食口는家長된乙煥이와그의夫人과子息男妹가잇섯다합니다 그런데乙煥이와그의아들乙男이는建築과美術을研究하고그婦人과딸乙女는間接으로그것을도음니다 乙煥이는自己나라것을몃번을두고배우며또研究한結果만히改革도하얏슴니다 그러나그는自己나라의美術이아즉幼稚함을알고新羅서울로배우러갓슴니다 新羅國에온그는모든것이驚歎하고想像하든以上임에참으로놀낫스며더러서배울點이만흔것을깨다랏슴니다 그리하야三年을배웟스나또배울것은如前하얏슴니다 그러나집은그리웟고또乙男이도벌서부터이곳美術을가르칠생각이나서 一次本國으로도라왓슴니다 집에도라와본즉그의안해는一年前에죽고다못子息男妹가쓸쓸히지내는데그들조차生氣가업슴니다 사랑하는안해를일코또사랑하는아들과딸을본乙煥이의마음은非常하지안햇스며이에그는病이되어그抱負와理想은乙男이와乙女에게遺言으로두고그만不歸의客이되엿슴니다 그遺言은이러합니다 『너는新羅의美術을배워다가研究해서우리나라도美術國이되게하야라 이것이나의目的이엇스며 또너희에게바라는全體이다 그리고乙女는옵바를잘도아주어라』 乙男이와乙女는父母를모다일흔

女는참으로쓸쓸하게지내엿슴니다 그러나또한이두리는서운하엿더나잇지아니하면아니되게되엿슴니다 그것은乙男이는新羅國으로工夫하러가게됨으로써임니다 아버지의말슴에조차乙男이는新羅國으로工夫하러가게된것임니다 그들은참으로섭섭하얏슴니다 더욱히어린乙女는엇지할바를아지못하엿슴니다 그러나아버지의最後付託임으로엇지할수업섯슴니다 그래서乙男이는동생에게五年間만잇다오겟다는約束과그외멋마되付託을남겨두고 그해봄에新羅國으로떠낫슴니다 그는멀리二千里밧新羅나라를向하고외로히산을넘고물을건너떠나갓슴니다 주림을당하야아지못하는洞里에가서도새이기도하엿슴니다 그러나험한길걷엇슴으로어느덧百여日만에新羅나라서울에도착하얏슴니다

乙男이는明媚한山川을봄에情다웟고雄壯한文物을볼때에놀래엿스며華麗한文物을봄에情아니치못하엿슴니다 더욱히이것을모도다배워서이以上의것을高句麗나라에서할것을생각할때에김븐마음은奮發의勇力을자어내엿슴니다 그리고마음이急해저서곳先生을구하엿슴니다 이리저리곳곳을차저다니며先生을구한것이마츰하날이도으심이엇든지그곳에아버지를가르치든先生이엇슴니다 乙男이는前後事情이야기를다하고가르켜주기를請하엿습니다 先生은乙男이의마음은感激無量이엇슴니다 사랑하며來를뭇고이제도라오기를기다리든乙煥이가죽엇단말을들을때先生은몹시슯허하며다시그의아들乙男이가그뒤를이어멀리이곳에온것을생각하게바라든바를다시乙男이에게말하엿슴니다 乙男이도先生의勸하는말을들을때에도라가신아버지의말을드른듯하야질거우면서도또한그스러웟슴니다 이로부터先生은모든것을徹底히잘가르치고또乙男이는잘배웟슴니다 建築術도배우며彫刻도배웟슴니다 그러나乙男이의마음은눈에잇는乙女를생각하야잇지못할수업슴니다 달밝은밤이나쏫피든아츰에는故鄕생각이나서멀리故國하늘을바라보며또乙女는엇더케지내는가하는생각이들어懷慨의눈물이소사나옴니다 또그때마다아버지의遺言이생각나서마음에힘을엇엇습니다 이러케하는동안에一年이지나매乙男이는本國에서도배운이라그의學術은매우進步되야이제는實際로하야가면서배우게되얏는데그는마참佛國寺建築工事에當하게되엿슴니다

乙男의마음은故鄕이그리운가는아지못하고다만故鄕이그리워서그런느니라합니다 그래서각금옵좋수부는道伴의게로리고가서乙男이를慰安해줌니다 이러케乙男이는先生이또내마음을慰安해주시려불으시는구나하고『다만아니얘요』하고對答하엿슴니다 그러나先生은平時와달라또한번『감충엇시말해라 나는너를위하야듯고싶다 자-마음에잇는바를말하야라』하고嚴하고도多情하게말함으로乙男이는말을말고아니하고는견데지못할것을알고차차히말을始作햇습니다 『제가처음이곳에오기는五年間을約束하고왓습니다 그런데이제는멧칠을아니하야그五年을다지내게되엿서도라가야하게되엿습니다 다만은先生의恩德을갑지도못하고또는前에그繼을하게되엿슴니다 그래서이제는先生의恩德을萬一이라도갑고또이工事의完成을도웁기爲해서이後二年을더머물어잇고자합니다 아-先生이시어容恕하야주요』하고조금말을쇠엿다가『그러나집에서는乙女가기다리는데乙女는엇지나되겟습니가』하고그情況을생각하고울엇습니다

乙男이의말이맛나자先生은端正히하야『응-네가五年이란사이를約束하고왓다니그러면너는무슨일이냐 그事情에對하야同情하는바이나事業家에게는私情이란말은업는法이다 무릇사람이한事業에當할진대반드시그事業을이룬後가아니면떠날수업는것이니中途에서떠나는것은將來아무成功을엇지못밋사람의버릇이다 더구나이런(寺)工事는純潔한사람만을選擇해서하는터이라工事中에는絶對로女子를보지못하는法이라하니外에생각과가치이工事가完成함을보고가야할것이다 그리고네恩德을갑는다는것은바라지아니하는바이니다만나의技術을後世에던리傳하며또研究改造해주면고맙것다』

이말을들을때乙男이는또한感謝하고퍼뜻하게말하엿습니다 乙男이는이先生의말이참말感謝하엿습니다 그리고偉大한敎訓을어덧다하엿습니다 그리하야乙男이는멧변이지내던지이工事의完成을이룬後에도라가기로決心하엿습니다 이에乙男이는더욱先生의사랑을밧으며배움은더욱더욱完實하야감니다

◇ ◇

이케는乙男이가떠난後乙女가엇더케되엿는가를말하겟습니다 乙男이를보내고처음몃칠동안은밥도먹지아니하고잠도자지아니하고오즉『옵바옵바』하며우름으로날을보내고밤을보내이엇습니다 아츰이슬먹음고어엽부게웃는쏫도쓸々한乙女에게는눈물을자어냄뿐이엇스며가는바람과춤추는버들가지에서고읍게노래하는쇄고리소리도孤獨한乙女에게는울음을도읍는편이엇습니다 바람만불어도울고새만울어도울고모든일을울음으로對하엿습니다

이와가치몃칠을지내니까그도지치엇습니다 이케는그러케자조울지는아니하나乙男이를思慕하며또그배움이뜻과가치되기를비는속마음은참으로懇切하고깁헛습니다

아-옵바가어데쯤이나가겻는지! 보人다리를법헤까고山길놉넘어가는듯장룸붐건너는듯어케커녁에는사람업는틈에서잣고오늘커녁에는川속에서자고울기도하고부르짓기도하고! 乙女는이와가치생각합니다 또날이지낼수록 오-이케는百濟나라를것첫슬터이지…아마新羅나라에다々릿슬터이지…선생도구하엿슬것이다…그래서아마지금배울것이다하며상상하는것으로질거움을삼엇습니다 이와가치하야一年을보내고二年을보내고三年을보내며四年을보내고於焉五年間을보내인乙女의몸은思慕와默慮에웬몸이녹아바릴듯하엿습니다

이케五年이지나매그는솔푼미집벗습니다 오!이케는옵바가모든것을죄다배우고아버지가가지고오신것과가치金指環,玉佩를사가지고오실터이지…하고이케는乙男을보볍벼와가치스러운생각이아니오아마옵바는것지도아니하고무엇을타고올것이며동리마다마커드리는것가치생각되엿습니다 이리하야乙女는果實을보아도『이것은옵바에게드리리라』하고녀두엇스며衣服도새로하엿습니다 貧로옵바를기다리는乙女의마음은깁부면서도燥急하야一刻이三秋갓햇슴니다

아-그러나무상한옵바는오지아니합니다 도라올때가지나도오지아니합니다 이에乙女는엄마나失望하얏스며얼마나念慮하겟슴니가 그는몃칠을精神업시누엇섯슴니다 그리고각금떠오르는것은『옵바는萬里他鄕에서不歸의客이되엿는가!아니新羅가天國이라니永住할作定인가』함이엿습니다 그러나乙女는아버지의『너는옵바를도아주어라』하신遺言이잇슴으로옵바를咀呪하는생각은긋자아니하고오즉옵바를思慕합니다 누은지멋칠이못되야그는오려오르는마음을억지치못하야『옵바야살아게시던지죽어게시던지이몸은옵바를차저가리로다』하고단연히길을떠낫습니다 동리사람이말리는것도듯지아니하고新羅나라로가기로하엿습니다 그는男服을차리고먼길을오즉옵바를보고저하는마음으로험하고쉬지안코걸엇슴으로녀자의거름이라할지라도그이듬해첫여름에그는新羅서울에다々럿슴니다 新羅서울에온그는세상사람이憧憬하는大國그것이건만그모든것은아름다운것도갓지아니하고또부러도하지아니하고오즉옵바를차잣습니다 넓은서울안을몃칠이나헤매이엇던지옵바가佛國寺에서일하고잇는것을알게되엿습니다

죽은줄알앗던옵바가살아잇다는말을들을때乙女의마음은참으로깁벗스며옵바를보고커하는마음이더욱懇切하야곳佛國寺로갓슴니다 乙女가佛國寺를向하고갈새절(寺)까지五里나되는곳에큰글자로『女子는드러오지마라』는말이써부쳐잇습니다 이것을본乙女는엄마나落望되엿겟슴니가 그는하도어이가업서서々한참되려다보앗스나다름은업섯습니다 이에乙女는그만卒倒하얏습니다 조곰잇다가그곳을지나든엇던할머니가엇던女子가氣絶하야잇슴을보고그는사람을불너다가집으로업어다뉘이고몸을주믈으며回生식히기에힘을다하얏습니다 몃時間이지나서果然乙女는다시사라낫습니다 할머니는반가워하야그來歷을무럿습니다 乙女는이상하게녀기면서도感謝하야自初至終을말하얏습니다 ……가슴몰엇슴니다 할머니는乙女의등을어루만지며말을溫溫히하야『네事情이내事情과갓고나내아들도그절에서일하는지가六年이나되나六年前에보고는이때것보지못하엿다 그절에서일하는사람은일을마치기까지絶對로外出을아니하며또女子를아니보기로하고일하는데그러지로면問答하엿단다 그러니까그일이뭇나기까지내집에서기다려라 그外에道理가업다』하고乙女를달래이엇습니다 그리고孤獨한할머니는乙女가親아들가치사랑스러웟스며또한乙女는어머니를만난듯한感이잇섯습니다 乙女는옵바가아니오는뜻을알게되는同時에그專心으로工事를完成하려는그의마음에敬意를表하며또工事가完成하기前에는맛나지못할것을알엇습니다 그러나그는한편에强烈한思慕의念이잇섯습니다 그리하야마참내乙男에게便紙를보내엿습니다 便紙에는『옵바의未今신뜻에敬意를表하며그事業과옵바의將來가如意하기를빕니다 그러나罪만흔커는옵바를잇지못하야이곳外지왓습니다 容恕하심을바라오며斷念하오니너무念慮하지마시고그리운옵바의얼굴을한번만뵈여주소서』하는意味의말이엿습니다 그러면이便紙를본乙男의마음은엇더하엿슴니가 그는깜짝놀라며속에어잇든스름이한거번에터커나와방울가든눈물을흘리며『아-乙女냐容恕해라나의罪다나의罪』하고부르지젓습니다 그러나乙男의마음은乙女를생각하는同情하는것으로가득하엿슴니다 그러나一次決心한것을엇더케하겟슴니가 그는새삼스럽게이를생각함에더욱悽然함을禁치못하엿슴니다 이에그는深思苦究하야한方策을만드렷습니다 그것은先生으로부터배운才術을利用하야이절과뇌몸을커五里外에잇는못(池)에來日부터비치게하야이것이라도乙女에게보히리라함이엇스니이말은乙女에게보내는回答文의한句節이되엿습니다 이回答을본乙女는참말깁벗스며感服하엿습니다 乙女는밤이새기를기다려이른날그못가에갓섯습니다 산과산사이에잇는맑고도또몸이맑은못(池)고요한果然神奇한才操로다 五里外의佛國寺를드려다보게되엿습니다 아-實엄는그못에影子가되야잇습니다 랑게(足攀)속에잡긴雄壯한佛國寺가그못가온데잇스며랑개우에사람이일하고멋든것이보입니다 乙女는그사람속에서乙男이를차커냇습니다 그는多寶塔우에서돌을다듬고잇습니다 그의얼골은집에잇슬때보다초라하고시컴하엿습니다 그리고솔푼빗을띄이고잇습니다 乙女는생각하기를내몸을생각하야여그러는가하야미안하엿습니다 또그多寶塔의아름다옵고雄壯함을볼때오이것은옵바의손으로만들은것인가보다 아-이케는아버지의遺言하신바를엇엇구나하는생각이나고깁거운中에……리하야乙女는하로도빠지지안코乙男이의모양을차져다보앗습니다 ……그러나乙男이는 夕陽해가지…… 해산속으로잡기고金色구름이하늘을수노으며가는바람이몸닙을고요히슷처가는때塔우의乙男이는한참默然히안젓더니그만내려감니다 精神을일코바라보고잇든乙女는그만『옵바々々』하고浚海부릅스나옵바는그만사라짐으로그는옵바를따러찻는양으로몸속에세첫습니다

◇ ◇

아-乙女는옵바를부르면서그만이세상을떠낫습니다 그리나아버지의遺言을잇지아니하고옵바를도으려는마음과또옵바를思慕하는誠은其後即時蓮尖이되야몃千年을두고오고가는사람의입을쌍볼고잇스며世上사람은그못이름을고커影池라하고乙男의志와乙女의情을닛지못합니다

花王石鹼

廉價의良品은國寶임니다

●國家의難局에直面하야恒常切實한必要를感하는것은國力의充實이다。然而此에到達할唯一한길은國民的大自覺으로써、自制自彊、富力의蓄積과體力의向上을期함에잇슴니다。

●우리「花王石鹼」은創業初부러國家的見地에立하야國産自給의極히緊切함을鑑하고모든困難을물니치고製造에從事한것으로國益에資하려는大精神아래一貫한廉價良品主義를奉하야恒常最大한努力을다하는바이외다。

●이로써價格은經濟生活의本旨에適當하고品質效果로는保健衛生의目的에適合하고眞箇「至純至廉의第一品」으로보니一般의期待에副하고、經濟的日用品、衛生的必需品인使命을勵行함은弊舖의가장欣快이며榮光으로아는바이외다。

●勤儉力行、嘗膽의實을擧하면、我國力의充實이決코遙遠치안할것이니、國運의興隆이期待와一致할것이외다。富力에體力에擧國一致하야奮發努力의必要할時、國民經濟에保健衛生에、至重한關係를有하며또한其使命을遂成하는本品에對하야

愛國的愛顧를希望

花王石鹼製造元 合資會社 長瀨商會 東京市日本橋區馬喰町二丁目 (特約)

高尙하고 美麗한 純無鉛의 クラブ(구라부)白粉

心臟病

◆注意

日輪寺 川院

放心하지마시오—泄瀉腹痛에 悲慘할—消胃加答兒

伯村博士創製 ヘルプ

汽車時刻表

[illegible]